

한 획 한 획에 인생 담아요



20여년 '금강경 사경' 서예가 김복수 선생

"어느 날 제가 써서 모아온 <금강경>들을 정리했습니다. 70여점 정도 되는데 정리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이렇게 많이 썼나 싶더군요."

절에 주기적으로 가서 교리를 공부하거나 수행을 다져온 불자는 아니었다.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공부하며 서예를 배웠던 서예가 김복수 선생(65).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부처님오신날 절을 찾아 등을 달았고, 커서는 등산길에 절에 들러 부처님께 인사드린 것이 전부였다. 불자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웠던 시간들이었다.

어느 날 평탄하게만 지내왔던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팔라온 책은 다름 아닌 <불교성전>이었다.

그 책 속에서 <금강경>을 발견했다. 오로지 <금강경>만 눈에 들어왔다. 일과 시간 외에는 <금강경> 쓰는 것에 매달렸다. 뜻을 몰라 해설집도 여러 권 읽었다.

<금강경> 5000여 한자를 한 장의 한자에 담아내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렸다.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다. 먹물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쓰다가 다시 시작하고, 획을 하나 실수해 또 다시 시작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시작한 <금강경> 사경은 그대로 수행이었다. 2년 전 97세를 일기로 작고한 노모는 생전 <금강경>을 쓰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들의 눈이 나빠질까 항상 걱정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몰두했다.

한 획 한 획이 김복수 선생에게는 수행의 걸음걸음이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108배도 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며 잡념을 없애고 붓끝에 더욱 정신을 집중했다.

"지금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108배를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육체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수행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일거양득"이라며 자랑한다.

왜 <금강경>이었을까? 김복수 선생은 딱 떨어지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정신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 뿐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 상황이 자신 속에 울타리던 불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구나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그에게 <금강경>은 인연의 시작이자 필연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금강경>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지내보니 그냥 흘러 지나온 것보다 뭔가 의미있는 것을 인생에 하나 남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뿌듯했죠."

한 번 사경에 2~3개월 걸려...어느새 70여점 '降伏其心'-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
작업하다 막힐 땐 108배로 잡념 씻고 집중
작품모양 크기 제각각 글씨체도 매번 달라
상내지않으려 낙관 대신 '불심' 두 글자

<금강경>의 여러 글귀 가운데서도 김복수 선생을 가장 사로잡은 매력적인 문구는 '항복기심(降伏其心)'이다.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이 말이 가슴 속에 와 박혔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다. '항복기심' 해야만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응무소주이생기심 應無所住而生其心)'이 가능했다.

살의 화두로 삼았다. 지금도 어디서 회호 부탁이 오면 곧장 '항복기심'을 써준다. 항복기심 네 글자에 <금강경>의 선지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한 획 한 획 그으며 가진 필력을 전부 쏟아 붓는다.

<금강경>을 매일 매일 쓰다보니 몇째 줄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머리 속에 다 들어왔다. 그 때도 틀릴까봐 한자 쓰고 보고 한자 쓰고 보고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한다. 20년 간 종이 가 닳도록 들여다본 <금강경>에는 색색의 연필로 그려

진 자국이 남아있다. <금강경>을 쓸 때마다 구성과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자라도 놓칠까 일일이 표시해 놓은 자국이 있다. 책에도 먹물이 잔뜩 배어들었다.

70여 점의 <금강경> 사경 작품들은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다. 손글을 녹여 10쪽 8쪽 병풍을 작업해 놓은 것도 있다. 일관되게 이어간 것은 <금강경>에 담긴 글이고 사상이었다. 원 모양의 사경작품은 일원상을 생각하며 작업했고 연꽃을 연상하며 팔각형의 화선지에도 썼다.

한 작업을 마치면 다음 사경은 어떤 모양과 크기로 어떤 글씨체를 선택해 쓸까를 생각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힘든 줄을 몰랐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세필로 써내려간 <금강경>들은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정교하다. "나이 60이 넘어서야 오른쪽 어깨가 아주 힘들어졌구나 하는 실감이 올 뿐이었지 한참 사경에 몰두했을 때는 아프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다"는 김복수 선생은 자신의 사경에는 낙관을 찍지 않는다. 대신 '불심(佛心)' 두 글자만 남긴다.

거창한 낙관으로 상내게 싫어서다. 틈틈이 <금강경> 사경에만 매달려 있다보니 가정관리에 소홀하기도 했다. 그 빈틈은 부인 조옥순 여사가 채웠다. <금강경> 사경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뒤에서 부인은 삶은 기색 한번도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만 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집안일 한번 제대로 못 도와준 부끄럼 아버지오 남편이었는데 가족들 모두 제게 불만을 가지기보다 몰두하는 불심만을 받아들여줬어요."

앞으로 보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김복수 선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또다른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가슴을 울렸다.

"인생에 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강경>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을 꼭 읽으세요."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20여년간 <금강경>을 사경하며 자신의 수행을 다져온 서예가 김복수 선생.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퍼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기간: 3.17 ~ 4.24. (매주 금 ~ 일) 장소: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참가비: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17 ~ 4.23 매주 금·토·일)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3.17 ~ 4.23	19:00	저녁예불	월 정 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04:00	새벽예불 / 염불정진	
	05:00	경행(전나무 숲) / 아침공양 / 운력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식	동·서·남·북대
	19:00	저녁예불	상 원 사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05:00-06:00	경행(한암·한위대종사 부도탑)	
아침공양			
4.24	09:00-10:30	참법 및 포살	중대사자암
	11: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적멸보궁
	12:00	서원 및 회향	적멸보궁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대법륜전
	10:40	한암대종사 탄신제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12:30	'한국불교와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일시: 2006년 4월 24일 10시
◆장소: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響' 학술세미나

◆일시: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장소: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문의처: 월정사 중무소 033)332-6664, 5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40